

남북한 '온달' 소재 소설의 비교

장경남*

- I. 머리말
- II. 『삼국사기』 열전 소재 〈온달〉
- III.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온달전〉의 서사
- IV.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온달전〉의 인물 형상
- V. 남북한의 온달 이야기 비교
- VI. 맺음말

〈국문초록〉

‘온달’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 작가의 시선은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 작가인 김지원은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을 통해서 당대 여성들이 겪는 자아정체성 문제를 ‘편강공주’ 입장에서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소설은 『삼국사기』의 〈온달〉을 소재로 하고 대체적인 서사는 이를 따르고 있으나 제목에서와 같이 작품의 주동인물을 여성인물로 내세운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된, 당대인들의 현실적 문제인 결혼관에 대해 소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조령출의 〈온달전〉을 통해 한 영웅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온달은 인민영웅으로 고난 속에서도 꺾끗하게 버티고 냉

* 숭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정하고 진취적이며 천성적 기질을 지니고 있다. 미천한 처지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서사와 무술에 능하고 지혜와 용맹성이 있는 고구려 사람의 모습을 온달에게서 찾았기 때문이다. 인민성과 애국심을 갖춘 온달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지향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기에 중시된 것이다.

남한의 온달은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온달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단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 인물 ‘온달’을 소재로 한 남과 북의 소설이 다른 것을 확인한 이상, 우리는 남과 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소설 문학은 남과 북을 상호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핵심어 : 온달, 평강공주, 남과 북,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온달전, 김지원, 조령출

I.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 ‘온달’ 조에 수록되어 있는 傳記이다. 전기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인물의 일대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하나의 소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서사성이 뛰어나기도 하다. 근래에는 초기 傳奇小說의 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그만큼 소설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열전」에 수록된 〈온달〉은 남과 북에서 각각 소설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남한에서는 1985년에는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라는 소설에서, 그리고 북한에서는 1984년에 조령출의 〈온달전〉이라는 소설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두 작품은 소재를 『삼국사기』의 〈온달〉로 하고 있으나 이야기 전개나 인물의 형상화 양상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온달〉을 소재로 한 현대문학 작품 가운데 주된 관심을 받은 것은 최인훈

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이다. '온달' 관련 작품 가운데 이 작품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¹⁾ 하지만 〈편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에 대한 기존 연구는 미미하다. 김현실은 「운명적 사랑과 자아성취에 대한 현대적 물음-온달과 평강공주²⁾를 통해서 이 소설을 철저히 여성 중심적 시각에서 온달과 평강을 재해석한 것으로 보았다. 즉 남성 중심적 사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자아성취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며, '결혼'이 부부에게 인간적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자아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남자와 여자에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어떻게 열려있는가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였다.

최지선은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³⁾에서 〈온달〉이 현대문학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전승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가운데 김지원의 작품을 여성 주체의식의 결합을 놓치지 않고 이를 통해 현대 여성이 지닌 남편과 자식을 통한 대리 만족적 자아성취의 방식을 비판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조령출의 작품은 온달을 민족적 영웅이면서 동시에 인민적 영웅으로 규정했다고 하면서 김부식에 이어 현대에 온달이라는 역사 인물의 전기를 다시 쓴 형태로 보았다.

조령출의 〈온달전〉에 대한 연구는 필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북한문학에서 '온달'의 형상화 연구⁴⁾라는 논문을 통해서 온달이 인민영웅으로 형상화

-
- 1) 김유미, 「온달설화의 제의극적 변용 : 최인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한국어문교육』 8,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996.
김정혜, 「최인훈의 페러디 희곡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7.
김유미, 「최인훈 희곡의 신화성과 역사성 연구」,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정찬영,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27, 한국문학회, 2000.12.
김윤정, 「1970년대 희곡의 전통 활용 양상과 극적 형상화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박진희, 「최인훈 설화 소재 희곡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6.
최현정,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 아주대 석사논문, 2007.
노지혜, 「최인훈 희곡에 나타난 설화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우현철, 「최인훈 희곡세계의 신화원형적 고찰」, 상명대 박사논문, 2012.
최두례, 「최인훈 희곡의 설화 변용 연구」, 충북대 교육학박사논문, 2012.
 - 2) 김현실 외, 『한국 페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13~52쪽.
 - 3) 최지선,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5.

된 점에 주목하였다. 즉 『삼국사기』 〈온달〉이 공주와 평민과의 인연을 보여 주었다면 조령출의 작품은 귀족계층의 대표자인 공주가 인민대중 속의 영웅인 온달을 만나 자주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애정갈등과 고구려 보위라는 역사시대의 사명이 결합된 인민영웅의 이야기로 보았다.

남한과 북한에서 온달을 소재로 한 소설은 공히 『삼국사기』에 수록된 〈온달〉을 소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형상화 방식은 각각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한에서 발표된 ‘온달’ 소재 소설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작품에서 보이는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화 방식을 비교해 보고, 작자의 의도와 아울러 남북한 역사인물의 형상화 양상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II. 『삼국사기』 열전 소재 〈온달〉

『삼국사기』 제45권 「열전」 제5 ‘온달’ 조에 수록되어 있는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의 딸인 울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과 결연을 맺고, 온달이 왕의 인정을 받은 후에 장수로 활약하다가 전사했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온달이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에서 왕의 사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전사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는 작품이다.

『삼국사기』 수록 〈온달〉은 역사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고구려 때 장수로 활약한 장수 온달의 전기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허구적 요소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분히 설화적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우선 두 남녀 간의 결연담에서 허구적 성격이 강하다. 온달이 공주와 결합 이후 일정한 통과의례를 거쳐 입신양명하는 전체적 과정은 고진감래라는 당대인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며, 동시에 피지배계층의 신분상승에 대한 염원이 신데렐라적 모티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온달

4) 줄고, 「북한문학에서 ‘온달’의 형상화 연구」,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2017.1.

의 비극적이고 장렬한 전사와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이한 행적은 민간 전승의 설화적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다.⁵⁾ <온달>은 평민인 온달이 부마에 올라 武將으로 이름을 떨쳤고 그 과정에서 평강공주의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어 전기계 설화로 평가하기도 한다.⁶⁾

따라서 <온달>은 역사적 기록이라는 특성과 민간에서 전승되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설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온달>은 역사적 기록물인 동시에 허구적 서사물이라는 것이다. <온달>의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고구려 평강왕(평원왕) 때 바보 온달이 있었다.
- ② 온달은 가난하여 결식으로 어머니를 봉양했다.
- ③ 평강왕은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보내겠다고 한다.
- ④ 왕은 공주가 성장하자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 한다.
- ⑤ 공주는 왕은 희언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며 온달의 아내가 되고자 한다.
- ⑥ 왕은 노하여 공주를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내보낸다.
- ⑦ 공주는 보물 팔찌 수십 개를 가지고 궁궐에서 홀로 나온다.
- ⑧ 공주는 온달의 집을 찾아갔으나 온달 모자가 거절하자 설득하여 함께 산다.
- ⑨ 공주는 금팔찌를 팔아 살림살이를 갖춘다.
- ⑩ 공주는 온달에게 병든 말을 사오게 하여 건강한 말로 기른다.
- ⑪ 온달은 3월 3일에 열리는 수렵대회에 나가서 큰 성과를 올려 왕의 칭찬을 듣는다.
- ⑫ 온달은 後周와의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운다.

5) 최지선, 위의 논문, 14쪽.

6)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한국한문학회연구』 19호, 한국한문학회, 1996, 331쪽.

- ⑬ 왕이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大兄의 벼슬을 내려 총애한다.
- ⑭ 陽岡王이 즉위하자 온달이 왕에게 아뢰어 신라를 치러 떠난다.
- ⑮ 온달은 아단성에서 신라군과 전투를 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는다.
- ⑯ 장사를 지내려하니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아 공주가 와서 위로하자 비로소 움직여 장사를 지낸다.
- ⑰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비통해 했다.

위 서사단락별 내용은 각 단락의 주동인물을 중심으로 다시 일곱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⁷⁾

- 1) 온달 소개(①~②)
- 2) 공주와 부왕의 갈등(③~⑤)
- 3) 공주 출궁(⑥~⑦)
- 4) 공주와 온달의 결연 (⑧)
- 5) 공주의 내조(⑨~⑩)
- 6) 온달의 성공(⑪~⑬)
- 7) 온달의 전사(⑭~⑰)

일곱 개의 큰 서사단락으로 나눈 <온달>은 내용 전개상 두 개의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즉 1)-4)의 전반부는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연담이고, 5-7)의 후반부는 공주의 도움을 받은 온달의 성공담이다. 전반부의 이야기는 구비전승 설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고, 후반부는 온달이 명장이 되는 과정을 통한 애국심과 여성의 절조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 이로써 <온달>의 두 가지 속성인 역사적 성격과 문학적 성격을 동시에 볼 수 있다. 특히 온달의 戰死라는 비극적 결말은 민중적 영웅의 최후를 보여줌으로써 전설적 면모가 강하게 드러난다.

7) 최지선의 단락 구분을 바탕으로 재구성함.(최지선, 앞의 논문, 18쪽.)

8) 최지선, 앞의 논문, 18쪽.

〈온달〉은 온달을 주동인물로 보면 전형적인 영웅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몽과 같은 건국신화의 영웅과 비교해 보면, 온달은 미천하게 출생하고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온달을 신화적 영웅이 아닌 역사적 영웅이며 전설적 영웅으로 규정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면에 평강공주를 주동인물로 보면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난다. 평소에 울기를 잘해서 국왕에게 쫓겨나 바보 온달과 결혼한 후에 남편 온달을 도와 전공을 이루게 했다는 이야기나, 전사한 남편의 시신을 담은 관이 움직이지 않자 위로해서 관을 움직여 장사를 지냈다는 이야기는 다분히 설화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삼국사기』 수록 〈온달〉은 서사성이 강한 이야기였기에 소설의 소재로 곧잘 활용되었던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서 온달을 소재로 한 소설도 기본 서사는 『삼국사기』 수록 〈온달〉에 기초하고 있다.

Ⅲ.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온달전〉의 서사

남한에서 나온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는 김지원⁹⁾이 1985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어문각에서 간행한 『정통한국문학대계』 60권에 수록되어 있다. 제목을 통해서 보듯이 주인공의 이름을 〈온달〉과는 달리 '편강공주'와 '언달'로 바꾼 점이 특이한데, 8쪽의 짧은 분량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그리고 일련번호를 매겨 6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작품의 내용을 서사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김지원은 1975년 단편소설 〈사랑의 기쁨〉과 〈어떤 시작〉으로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미국으로 이민가서 재미 작가로 활동하다가 2013년 1월 30일 향년 71세의 나이로 뉴욕 맨하탄에서 타계했다. 1997년 중편소설 〈사랑의 예감〉으로 제21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1.

- ① 편강공주는 부왕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다.
- ② 왕은 밖에서는 어진 왕이지만 안에서는 아내를 박대하는 남편이었다.
- ③ 공주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면서 슬픔에 울어대곤 했다.
- ④ 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습관처럼 바보 언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말했다.
- ⑤ 언달은 왕까지도 아는 유명한 바보였다.

2.

- ⑥ 성장하면서 공주의 아름다움과 총명과 슬기는 날로 더해갔다.
- ⑦ 왕은 공주를 용맹한 장군과 맺어줌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
- ⑧ 공주는 어린 날의 부왕의 희언을 들어 언달에게 시집가겠다고 한다.
- ⑨ 왕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아무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못한다.
- ⑩ 공주는 어머니가 짜준 패물과 비단옷 보통이를 안고 쫓겨난다.

3.

- ⑪ 공주는 언달의 집을 찾아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청한다.
- ⑫ 언달과 언달모는 둔갑한 여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⑬ 언달 모자는 공주를 밖에 둔 채 밤새 관찰하였으나 여우가 아님을 알고 받아들인다.

4.

- ⑭ 공주는 패물을 팔아 큰 집을 짓고 땅을 사서 곡식을 심었다.
- ⑮ 언달은 번듯한 장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공주가 두 모자를 예로 대하니 동네사람들이 언달 모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 ⑯ 언달은 공주의 말대로 궁중의 말을 사들이고 무술훈련을 하고 글공부를 했다.

5.

- ⑰ 공주가 집을 나간 후에도 왕의 분노는 가시지 않았고 그때마다 왕비는 움츠러들고 그 앞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노력하며 딸의 행복을 기원했다.
- ⑱ 해마다 열리는 무술대회 날 언달은 왕의 눈에 띄어 불려갔다.
- ⑲ 왕은 언달임을 알고 놀라고 할 수없이 상을 내리고 돌아갔다.
- ⑳ 공주는 남편으로부터 아버지 애길 듣고 자기가 아버지의 귀염둥이 딸이 아니라 늙름한 사나이의 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을 기뻐했다.
- ㉑ 언달은 이웃나라와의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과 왕의 신임을 얻었다.
- ㉒ 왕은 일신상의 약점과 두려움을 딸 때문이라고 이유를 붙여 성질부리고 비통해 해왔기에 딸을 만나지 않았다.
- ㉓ 왕은 딸에게 베풀고 싶은 사랑을 언달에게 베풀었다.
- ㉔ 언달 장군은 왕에게 간하여 함께 전장에 출정했다.
- ㉕ 싸움마다 승전하다 어느 날 왕이 적병이 쏜 화살에 맞아 즉사했다.
- ㉖ 왕의 시체를 옮기려하나 관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
- ㉗ 달려온 공주가 입고 있던 치마를 벗어 관 위에 덮고 위로하니 관이 들렸다.
- ㉘ 언달은 왕이 되고 공주는 왕비가 되었다.
- ㉙ 언달은 태평성대를 이루어 백성의 사랑을 받았다.

6.

- ⑳ 중년이 된 언달과 공주는 겉으로는 좋은 한 쌍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 ㉑ 언달은 공주가 결혼을 하나의 성취로 보았고 공주 곁에서 한시도 편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 ㉒ 공주는 언달이 자신의 거울이고 꿈의 실체라고 고백하고 언달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며 흐느낀다.
- ㉓ 언달은 자신들은 원수관계라며 슬프게도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 자신

들 사이에 있다고 말한다.

- ㉔ 그즈음엔 왕의 명을 받고 맑은 처녀를 찾으러가는 궁중사람들이 성문을 나서고 있었다.¹⁰⁾

한편, 북한에서 나온 <온달전>은 조령출이 1984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평양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되었다. 7개의 소제목이 붙어 있으며 총 118쪽 분량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사기』 수록 <온달>의 서사 전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새로운 인물과 관계를 재창조하여 서사의 확장을 이룬 점이 특징이다.¹¹⁾ 작가가 붙인 소제목별로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바보 아닌 바보]

- ① 평양성에 온달이 사는데, 부친은 전쟁통에 전사하고 그 충격으로 모친은 눈이 멀게 되었다.
- ② 온달은 장님이 된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구걸을 하자 출중한 인물과 장대한 기골에도 불구하고 빌어먹고 다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바보'라 부른다.
- ③ 구걸한 음식은 입도 안 대고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를 드리는 온달을 놀리는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궁중에까지 퍼져갔다.
- ④ 성장한 온달은 농사와 사냥으로 집을 꾸려나가는데, 하루는 평강공주의 유모인 설씨가 떨어뜨린 금가락지를 찾아주고 설씨로부터 후사로 평생 소원이었던 어머니의 옷감을 받게 된다.

[평강공주]

- ⑤ 평원왕은 사랑하는 외동딸 평강이 어린 시절부터 울보가 되자 바보온달에게 시집보낸다는 말을 하곤 했다.

10) 최지선(앞의 논문, 62~63쪽)이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11) 줄고, 앞의 논문.

- ⑥ 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유모로부터 온달의 실제 됴됨이를 듣고 그를 꿈 속에서 보곤 한다.
- ⑦ 공주를 모시는 시녀의 언니가 대대로 집안에서 일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맞아죽었다는 것을 듣고 대대로 집안에 대해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갈림길]

- ⑧ 세월이 흘러 온달은 18세가 공주는 15세가 되었다.
- ⑨ 온달은 활로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나무를 해서 살아가느라 남들처럼 글과 무예 공부를 하지 못했다.
- ⑩ 경당 앞에서 마을 청년들간의 씨름대회가 열리고 온달은 영겁결에 대표로 10월 평양성 안에서 벌어지는 씨름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 ⑪ 10월 제천행사 '동맹'에 출전한 늙름한 온달의 모습을 본 평강은 온달에게 한눈에 반하게 된다.
- ⑫ 이듬해 봄, 3월 3일 낙랑별 사냥대회에서 대대로의 아들 우로는 뛰어난 무예와 글솜씨로 왕에게 부마로 낙점된다.
- ⑬ 평강은 우로의 아첨하는 듯한 글과 그의 됴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부왕이 우로와의 혼사를 얘기하자 부왕의 과거의 말을 들어 거절한다.
- ⑭ 평강은 금은 패물을 챙겨 내쫓기듯 궁궐을 나오게 된다.

[여우귀신]

- ⑮ 유모인 설씨녀의 배려로 설씨녀의 동생집을 찾아가 금이와 설부인을 통해 온달의 집 위치를 듣고 떠난다.
- ⑯ 금이는 사실 설씨녀의 외동딸인데, 유복자로 태어나 궁중유모로 들어가게 된 설씨녀 대신 그 자매인 설부인에게서 자란다.
- ⑰ 설부인이 금이를 시녀처럼 데리고 가라고 평강에게 말하지만 평강은 이를 거절한다.

- ⑱ 평강은 온달집을 찾아가지만 노모와 온달로부터 거부당하자 밤새 온달 집 시립문 밖을 지킨다.
- ⑲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믿게 된 온달은 공주를 대접하나 노모가 가난한 집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자 공주는 노모를 설득하여 함께 살게 된다.
- ⑳ 평강은 패물을 팔아 살기 좋은 아미 마을에 터를 닦고 새 집을 짓다.
- ㉑ 평강은 온달에게 말타기와 글공부를 하여 사냥 대회에 나가 이름을 떨칠 것을 권유한다.
- ㉒ 집들이를 하던 날, 평강은 유모가 궁에서 내쫓겨 아단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

[무사로 되기까지]

- ㉓ 공주의 권유에 따라 온달은 시장에 가서 비루먹은 국마를 싸게 구입한다.
- ㉔ 철지를 통해 우로가 온달에게 양심을 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 ㉕ 온달은 대형 우로의 행태에 대해 분개하는 철지의 모습이 예사 싸움패의 모습이 아님을 느끼고 놀라워한다.
- ㉖ 공주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말은 놀라보게 달라진다.
- ㉗ 온달은 활, 창, 칼 등의 무예를 배워 뛰어난 무예를 갖추게 되었다.
- ㉘ 온달은 경당노인의 도움으로 노인의 사위 을지소와 딸 아사윳과 함께 보현동의 암자로 들어가 무예를 익힌다.
- ㉙ 부왕과 대형 우로는 각각 그리움과 양심으로 평강공주를 찾아오게 했으나 경당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방해로 우로와 왕은 공주를 찾지 못했다.
- ㉚ 무예수련을 떠난 지 일 년이 넘은 어느 가을 밤 온달은 평강과 집에 대한 그리움에 노인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떠난다.
- ㉛ 그날 밤 평강은 자신을 찾기 위해 들이닥친 병사들을 철지의 기지로 간신히 피한다.
- ㉜ 집으로 돌아오던 온달도 공주를 찾으러 온 무리들에게 습격을 받지만

그들을 무예로 누른다.

- ㉓ 집에 온 온달은 평강의 준절한 기색에 가볍게 움직인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평강은 아침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지만 온달은 스승과 동트기 전까지 돌아가리라 약속했으므로 가겠다며 돌아간다.

[락랑별의 사냥대회]

- ㉔ 온달은 사냥대회에 출전하여 자신의 무예를 왕 앞에 드러내어 감탄을 샀다.
 ㉕ 우로와 경쟁하여 이기고 왕을 위기에서 구하여 치하를 받는다.
 ㉖ 사냥대회에서 장원으로 뽑혀나가 드디어 왕에게 자신이 온달임을 알렸다.
 ㉗ 왕은 희비가 엇갈렸지만 온달에게 상을 내리고 동명왕릉으로 갔다.
 ㉘ 왕은 비밀리에 온달을 불러 평강의 안부를 묻고 혼례여부를 물으니, 온달은 왕의 허락 후에야 혼례를 올릴 생각임을 말한다.
 ㉙ 왕은 무사가 되는 길과 부마가 되는 길은 다르다고 말하며 온달을 물린다.
 ㉚ 아미 마을로 금의환향한 온달을 마을사람들과 노모와 평강이 반긴다.
 ㉛ 궁에서 사람이 나와 평강을 금수레에 싣고 궁으로 들어간다.
 ㉜ 부왕을 대면한 평강은 자신의 불효를 사죄하나 자신의 뜻은 변치 않음을 고하고, 왕 역시 공주를 위해 온달로 부마를 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국왕으로써는 그럴 수 없음을 얘기한다.
 ㉝ 또다시 공주와 부왕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주는 온달의 집으로 돌아온다.

[온달장군]

- ㉞ 북국의 외적이 쳐들어오자 왕은 대모달을 선봉장으로 삼아 나가게 하니, 대모달이 활약하여 적군을 무찔렀으나 아군을 많이 잃어간다.
 ㉟ 대모달이 적장과 승부를 겨루어 이겼으나 적의 장수들이 그를 포위하여 해치려 할 때 온달이 나서서 적장들을 무찌르고 대모달을 구해온다.
 ㊱ 대모달의 부상으로 선봉장을 다시 세우고자 하니 신하들이 온달을 추

천여를 선봉장으로 삼았다.

- ④7 우로가 온달을 시기하여 자객을 보내나 철지에 의해 발각된다.
- ④8 온달은 적군을 무찌를 방책을 세워 을지소를 우익으로 우로를 좌익으로 삼고 전투에 나가나 온달이 함정에 빠져 수세에 몰려 우로의 좌익이 무너져 고구려도 위기를 맞는다.
- ④9 온달과 아사월과 철지의 활약으로 북국의 적군을 무찔러 승전하다.
- ⑤0 왕은 온달을 치하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우로는 변방 작은 성의 무관으로 보낸다.
- ⑤1 온달은 왕의 명으로 북쪽 성들을 돌아보고 평양성으로 금의환향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온달을 환영하는 중에 온달 모친의 눈이 밝아진다.
- ⑤2 온달과 공주의 혼례잔치가 열린다.

**

- ⑤3 온달이 싸움에 나가 전사하니 어머니는 온달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이를 보고 칭송하였다.
- ⑤4 평강은 온달이 죽은 전장으로 가서 보니 온달의 영구가 홍보에 싸여 있고,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달을 위로하자 관이 들려 이에 장사를 지내다.
- ⑤5 인민출신의 영웅 온달의 이야기는 온달의 전사를 아쉬워하고 공주와의 믿음과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평하다.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조령출의 <온달전>의 서사구조를 『삼국사기』 <온달>을 중심으로 대비해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온달>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	<온달전>
1) 온달 소개	1. (①~⑤)	[바보 아닌 바보], (①~④)
2) 공주와 부왕의 갈등	2. (⑥~⑧)	[편강공주], (⑤~⑦)
3) 공주 출궁	(⑨~⑩)	[갈림길], (⑧~⑩)

4) 공주와 온달의 결연	3. (11~13)	[여우귀신], (15~22)
5) 공주의 내조	4. (14~16)	[무사로 되기까지], (23~33)
6) 온달의 성공	5. (17~24)	[락랑벌의 사냥대회], (34~43)
		[온달장군], (44~52)
7) 온달의 전사	6. (25~34)	[후기], (53~55)

전체 서사를 비교해 보면 <온달전>은 『삼국사기』 열전의 <온달>과 같은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는 주인공의 이름에 변형을 주었고, 동시에 언달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 열린 결말을 취하고 있어 이 소설이 <온달>과는 다른 성격의 이야기임을 드러냈다.

김지원의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는 남부주인공의 결연 과정만 <온달>의 서사를 취하고 있다. 부왕의 성격과 죽음의 과정, 그리고 언달의 성공과 이후의 사건 전개를 서술해 나간 5와 6의 이야기는 이 작품이 <온달>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야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부왕은 아내를 박대하는, 딸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부정적인 가부장적 인물로 설정하였다. 가부장적 남성의 행위는 아내인 왕비는 물론이고 딸인 공주와도 불화를 겪게 한 원인이 되었고 급기야 딸의 불행을 초래하였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부왕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에피소드는 <온달>에서는 온달의 사건이었으나 이 작품에서는 부왕의 사건으로 변화를 주었다. 아버지의 관을 움직이게 한 딸의 행위는 용서와 화해의 의미이다. 아버지로 인해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언달을 만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한 공주인 딸은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왕비가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린다.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남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6단락의 에피소드는 여전히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아내/여성의 도움으로 인해 남편/남성이 성공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남성은 자기 위주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특히 결혼생활이 편하지 않았다는 언달의 고백에 이어 새로운 여성을 찾아 나선다는 6단락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한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조령출의 <온달전>은 題名 그대로 온달의 이야기임을 분명히 하면서 많은 삽화를 첨가함으로써 서사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온달>의 서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단락별 소재목을 삽입하고 내용을 확장하였다. <온달>보다 <온달전>이 더욱 많은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이야기를 풍부하게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입부의 주인공 소개는 두 단락으로 나누었다. 즉 첫 번째 단락 ‘바보 아닌 바보’에서는 남주인공 온달을 소개하고, 두 번째 단락 ‘평강공주’에서는 여주인공 평강공주를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 ‘갈림길’에서는 평강이 출궁하게 되는 원인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국왕에게 부마로 낙점된 우로를 평강이 거절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부녀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평강공주의 행동은 주체적인 사고에 따른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 번째 단락 ‘무사로 되기까지’는 온달이 무예를 익혀 성장하는 과정인데, 공주의 내조뿐만 아니라 경당노인의 활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섯 번째 단락 ‘락방벌의 사냥대회’에는 온달이 사냥대회에서 활약을 펼쳤으나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시련을 겪는다는 장면이 보태져 있다. 일곱 번째 단락 ‘온달장군’은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는 장수들의 군담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소재목을 붙이지 않고 온달의 전사 및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한 뒤에 작가의 평가를 덧붙인 이른바 작가후기 부분이다.

대략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온달전>은 <온달>을 기본 뼈대로 하되 다양한 장면을 삽입하여 더욱 풍부한 서사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편분량의 소설로 변형된 조령출의 <온달전>은 원전의 줄거리와 서사전개순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새로운 인물과 관계를 재창조한 점이 특징이다. 온달이란 영웅의 성장과정 속에서 공주, 설씨녀와 설부인 자매, 설씨녀의 딸 금이, 경당노인과 아사월, 을지소, 철지, 우로 등 더 많은 인물과 인간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주인공이 ‘바보’로부터 ‘영웅’이 되기까지 또한 ‘영웅’의 죽음까지 사건이 전개되는 일대기적 구성을 다루었다. 인민의 도움으로 영웅이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달을 인민영웅으로 탈바꿈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바라보는 영웅에 대한 생각의 단면을 이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서사 내용을 통해서 남과 북에서 '온달'을 소재로 한 소설의 서사구조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비교해 보기로 한다.

IV.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와 <온달전>의 인물 형상

4.1. <편강공주와 바보언달 이야기>

1) 편강공주

작품의 시작은 <온달>과 다르게 편강공주의 소개로 시작한다. 편강공주 소개로 작품을 시작함으로써 이 소설은 편강공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편강공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려는 작자의 의도이다.

옛날 어느 나라 궁궐 속에 어여쁜 공주님이 금이야 옥이야 귀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편강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두 눈에 별을 초롱초롱 담고 말도 빨리 익힐 뿐 아니라 나이답지 않게 총명한 관찰을 하여 왕과 왕비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왕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국사를 처리하다가 내실로 들어 어린 공주와 노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¹²⁾

공주는 동화 속이나 등장하는 등장할 법한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아버지인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여쁜 공주로 묘사되고 있다. 별 어려움 없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공주이다. 부모는 물론 세상이 모두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줄로만 알았던 공주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다. 인

12)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정통한국문학대계』60, 어문각, 1986. 95쪽.(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으로 하되 해당 페이지만 제시하기로 한다.)

간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 깨달음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은 슬픔으로 이어지고, 이 슬픔은 습관적인 울음으로 표출되었다. 공주가 울보가 된 내력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왕은 공주의 슬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릇처럼 바보 언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는 말만 한다. 왕과 공주의 갈등은 공주의 자아 찾기에서 비롯되었다.

왕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공주를 활용하려고 한다. 용맹스런 장군을 사위로 삼아 이웃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왕위를 노리는 인척을 견제하려는 의도이다. 왕의 욕망은 공주의 결혼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자신의 성취의 도구로써 이용하려는 부왕의 모습 역시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의 모습이다.¹³⁾ 그러나 공주는 이제 “아버지를 숭배만 하는 어린 소녀”가 아닌 인물이다. 왕의 의도에 정면으로 거절하고 오히려 언달에게 시집가라고 했던 말을 지키라고 한다. 더 이상 아버지의 소유물로서가 아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저는 부귀와 명예 있는 분에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 속에 사는 어머니의 비통함을 보았습니다.(96면)

공주는 단호하게 부왕의 요청을 거절했다. 왕비로 사는 어머니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예견한 것이다. 어머니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게 억눌려 사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아래 살아가는 여성의 존재를 어머니로부터 확인하고 자신은 이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다. 공주는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주체로 거듭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딸은 여자로 눈부시게 변모해가며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감지한 왕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공주에게 “나는 오늘로 너를 죽은 것으로 치겠다”는 선언을 하고 공주를 궁궐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

13) 최지선, 앞의 논문, 65쪽.

공주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호해 줄 수 있고 두려움을 서슴없이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낮은 곳을 떠나기는 겁이 났”지만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궁궐에서 쫓겨난 공주는 사람들에게 언달의 거처를 물어 겨우 언달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언달 모자는 공주를 둔갑한 여우로 생각하고 집으로 들이지 않는다. 언달 모자는 하루밤을 꼬박 새워 관찰한 뒤에야 의심을 풀고 공주를 맞이한다. 이렇게 해서 공주는 언달의 아내가 되었다. 언달의 아내가 된 공주는 궁궐에서 가지고 온 패물과 비단을 팔아서 큰 집을 장만하고 땅을 사서 곡식을 심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남편 언달을 “번듯한 장부의 모습을 갖추게”하였다. 또한 말타기와 활쏘기 연습을 시키고 고명한 스님을 모셔다 글공부와 우주의 이치를 배우게 하여 언달을 훌륭한 인물로 변모시켜 급기야 왕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었다.

공주는 무술대회에서 큰 활약을 펼쳐 상을 받아온 언달에게 부왕의 얘기를 들으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림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자기가 아버지가 정해준 길로 가는 귀염둥이 딸이 아니고 늙름한 사나이의 부인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준 것이 공주는 기뻐합니다.(100면)

부모가 정해준 길을 걷는 대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주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언달은 무훈을 세워 높은 벼슬을 얻고 왕에게 신임을 얻었으나, 왕은 딸을 만나지 않았다. 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부왕과 공주간의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 공주의 의도와 능력을 확인했으나 부왕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왕과 공주의 갈등은 왕의 죽음과 장례 과정을 통해서 해소된다. 언달의 성공까지는 <온달>과 다르지 않으나, 전투 중에 온달이 아닌 왕이 죽는 것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언달과 함께 전투에 나갔던 왕이 화살에 맞아 죽자, 언달이 좋은 관에 넣어 궁궐로 옮기려 하지만 관은

땅에 붙어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공주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는 통곡을 한다.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면 언제나 명절날 같았어요. 그 좋은 기억은 저로 하여금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당신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100면)

이렇게 공주가 위로하고 자신의 치마를 벗어 관 위에 덮자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 공주의 위로는 자신이 늘 아버지에게 속했으며, 자신이 살아갈 힘은 아버지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으로써 부녀간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딸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딸은 그런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갈등은 해소된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보다 사랑의 힘이 더욱 크다는 역설인 셈이다.

작가가 형상화한 편강공주는 어려서부터 부왕의 사랑을 받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인물이다. 어머니를 통해 남편에 귀속된 삶이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자신이 원하는 상대인 언달을 찾아나서고, 남편 언달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부왕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은 채 부왕의 죽음을 맞이하나 공주의 용서로 인해 관이 움직여 장례를 치르게 하는 사건을 통해 부왕과의 갈등도 해결하고 만다. 작가는 편강공주를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적 삶을 사는 여성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의 사건 전개를 통해서 작가는 공주의 삶이 과연 진정한 여성의 삶이었는가에 물음을 던진다.

언달은 전사한 왕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하여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런데 왕과 왕비가 된 언달과 공주는 “보기 좋은 한 쌍”이었으나 내면으로는 새로운 갈등을 안고 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론을 하고 있다. 우선 왕비가 된 편강공주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저는 당신에게 시집온 이래 항상 앞날을 설계하고 계획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당신이 출세하시고, 이런 것들을 위한 대로 노력하였으며 하나씩 힘들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미래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래는 여기 바로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불행해졌습니다.(101면)

편강은 언달과 결혼한 이후로 언달이 잘 되기만을 기대하며 아낌없이 노력하였다고 진술한다.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출세하도록 내조하는데 힘을 쏟았던 것이다. 그 노력으로 인해 하나씩 성취해 갔으나 결과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오히려 불행을 느끼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을 가까이 보았습니다. 만난 이후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아마도 나는 남편을 잘 모르는가 보다. 두려움이 아내를 둘러쌌습니다.(101면)

남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조를 해왔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랐던 것이다. 만난 이후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낯설음, 그리고 부부로 같이 살아왔으나 상대방을 잘 모르겠다는 이질감으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서러움에 눈물만 흘릴 뿐 어찌할 바 모른다. 왕비의 태도에 대해 왕은 “우리는 원수끼리 만난 것이요.”라는 말로 대응한다. 왕비는 언달에게 당신은 ‘거울’이고 ‘꿈의 실체’였다고 고백하며 흐느껴 울지만 왕은 “우리는 원수를 만난 것이며 그 원수란 자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요”라고 대답한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믿었던 남편이지만 이러한 대답을 듣고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만다.

편강공주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언달을 선택했다. 언달의 성공은 자신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헌신적으로 언달을 위해 노력했으나 부왕에게서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더군다나 자신이 의지했던 언달에게서 조차 낯설음을 느낄 정도였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편강공주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말았다.

작가는 편강공주를 통해서 결혼은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 셈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남편 혹은 자식은 자신의 이상이나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통한 성취는 결국 한계를 지닌다. 궁극적인 자아성취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¹⁴⁾

작자가 형상화한 편강공주는 어찌보면 이 시대의 아내상이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의 아내였던 것이다. 작가는 편강공주를 통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현대 여성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2) 언달

편강공주에 비해서 남주인공 언달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작품 초반에는 편강공주의 의지에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편강공주가 우는 버릇이 생기자 왕은 “바보 언달에게나 시집보내야겠다”고 했다. 왕의 입을 통해서 언달은 바보로 소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언달의 인물됨이 제시되고 있다.

언달은 이 나라 백성이면 누구나 다 아는 바보였습니다. 초야에 묻혀 소리없이 살다가 소리없이 세상을 하직하는 겸손한 바보도 많은데 언달은 왕까지 알도록 명성이 높았습니다.(96면)

언달은 왕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바보였던 것이다. 언달은 산비탈에 쓰러질 듯한 초막을 짓고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인물이다. 편강공주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여우가 아닌가 의심하다가 하룻밤이 지나도록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의심을 풀고 편강공주를 맞아 들었다. 나무를 해서

14) 최지선, 앞의 논문, 68쪽.

생계를 이어가던 언달은 편강공주의 도움으로 집을 짓고 땅을 사서 곡식을 심으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차차 변모를 하게 되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산열매나 나무뿌리를 찾아서 산짐승같이 산등성을 헤매던 언달은 번듯한 장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99면)

공주의 도움을 입어 번듯한 장부로 거듭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지만 말타기와 활쏘기 연습을 하는가 하면 고명한 스님에게서 글공부와 우주의 이치까지 배우게 되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게 되었다.

언달의 능력은 무술대회 날 발휘되었다. 무술대회에서 일등상을 차지해서 자신의 실력을 왕에게 보여주었으나 사위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다. 심지어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언달이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웠음에도 왕은 “높은 벼슬을 내리고 크게 신임”했을지언정 사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하루는 언달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앉아서 외적이 침입해올 때를 기다렸다가 물리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소란을 떠는 그들을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저들이 가져간 옛 우리땅을 찾고 싶습니다.(100면)

이 장면을 보면 언달은 용맹스러운 장수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외적의 침입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아니라 먼저 외적을 치자는 적극성 또한 보이고 있다.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면서 왕에게 전쟁을 벌일 것을 건의하고 왕과 함께 출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투중에 왕은 전사를 하고 말았다. 언달은 왕의 장례를 위해 시체를 제일 좋은 관에다 넣고 궁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편강공주가 나타나 통곡한 후에 자신의 치마를 벗어 관 위에 덮자 그제서야 관이 움직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언달이 왕과 함께 출전하였다가 왕이 전사한 장면과 왕이 시체를 넣은 관이 편강공주에 의해 움직인 장면, 그리고 이어지는 언달의 왕위 등극 장면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야기의 초점을 편강공주에게 두고 있기에 나타난 변모이다.

장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언달은 훌륭한 왕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언달은 백성이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던 이웃 나라를 꿈쩍 못하게 누르는 무력의 실력이 있는데다가 농사짓고 사냥하며 서민으로 살았던 과거라 나라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였습니다.(101면)

왕이 된 언달은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한 군주로,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로 형상화되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노래할 정도로 정치를 잘하는 군주로 숭앙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아내와의 관계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중년이 된 왕비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불행해졌다고 왕에게 말하자, 왕은 성가신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당신은 결혼을 하나의 성취로 보았소이다”라고 대답했다. 편강공주가 자신을 통해 욕망을 성취하고자 했던 의도를 읽어낸 것이다. 아내의 올바르지 못한 결혼관에 대한 비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왕비의 말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당신은 제가 무엇을 말해도 대답을 하시지 않고 어떤 대는 제가 말하는 도중인데 자리를 뜨십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도 있는데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언달은 활활 옷을 벗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비단 금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감히 시중을 들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왕비는 아내로서 남편이 시중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101면)

왕비는 자신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거니와 말하는 도중에 자리를 뜰 정도로 행동하는 언달의 행위를 지적하지만, 언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다. 아내를 향한 애정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는 언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다.

당신은 완전무결한 아내였소. 나는 당신의 요구를 침묵 속에 받아들였소.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당신이 고쳐주는 행동거지며 말씨, 나는 이 나라 왕이라지만 당신 곁에서는 한 번도 편안해 본 일이 없소.(101면)

연달의 불만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간섭한 아내의 행동에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 주었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부인 곁에서 편안해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고백인 것이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 연달과 공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비뿐만 아니라 왕 또한 결혼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성취했다고 볼 수 없다. 왕이 왕비에게 한 다음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원수를 만난 것이며, 그 원수란 자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요. 아내여 슬프지 아니한가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끌어내는 원수란 자기 속에 있는 제 자신이니 아무리 애써도 글러버린 무엇이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오.(102면)

왕은 서로가 원수를 만났다고 했다. 왕이 말하는 원수는 자신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이다. 왕비는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왕 또한 자신의 영광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글러버린 것이라고 한 것이다. 왕의 입을 통해 서로가 자기만의 욕망에만 집착한 삶을 살아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서로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왕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그즈음 발길을 재촉하여 성문을 나서는 두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자란 맑은 처녀 하나를 데려오라는, 그날 낮에 내린 연달임금의 특명을 받고 먼 길을 떠나는 궁중 사람들이었습니다.(102면)

위 인용문은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이다. 왕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깊은 산속에서 하늘을 우러르며 자란 맑은 처녀”를 데려다 살 생각을 한 온달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후의 사건은 독자에게 상상하도록 맡겨놓는 열린 결말을 취하고 있지만, 작가의 의도는 언달의 이기심을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편강공주와 언달을 통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말 장면을 언달이 또 다른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언달로 대변되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를 좀더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한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삶을 은연중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바보 온달이 공주의 덕으로 인해 성공했다는 <온달>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꿈꾸는 것은 자신보다 나은 이성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현실적 욕망이다. 작가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며, 결혼을 통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뼈뺀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남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과 함께.

4. 2. <온달전>

1) 온달

작품에서 온달의 출생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부모님과 성장과정에 대한 내력은 소개하고 있다. 온달의 아버지는 “착실한 농군”이고, 어머니는 “아리수(압록강을 말함)가”에서 평양으로 시집을 왔다고 해서 ‘아리부인’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아버지는 온달이 세 살 때 군역에 뽑혀 변방 수자리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로 인해 장님이 되고 말았다. 온달 가족의 불행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리부인은 온달을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가 남편의 피 묻은 옷을 묻는다. 남편의 부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부터 온달의 처지는 미천한 신세가 된다.

이때부터 온달은 조그만 그물망태를 메고 평양성거리로 나가 밥을 얻고 반찬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¹⁵⁾

여섯 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위해 걸식을 하는 처지가 된 온달을 주변사람들은 바보로 부르기 시작한다.

그의 넓은 이마며 그의 검붉은 얼굴 가운데 우뚝이 앉은 큰 코며 산성의 북문같이 굳게 닫겨진 주춤한 입이며 축 처진 귀바퀴이며 그의 생김생김이 남자답고 시원할 뿐아니라 기골이 또한 장대하여 보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이러쿵저러쿵 말하였다.(7면)

그의 머리에는 늘 먼지가 뿌옇게 앉았으나 눈에 영채가 돌고 기골이 림림하여 보는 사람마다 아까운 놈이 거렁뱅이노릇을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놀려줘도 듣는중 마는중 하였으며 맞서 싸울 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병어리인가 하기도 했고 아이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댔다. 이리하여 누가 지었는지 모르게 “바보온달”에 대한 노래가 거리에 떠돌게 되었다.(8~9면)

멀쩡하게 생긴 외모에 밥을 빌러 다니는 처지가 되자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고, 그 이후로 바보 온달이 되었던 것이다. 온달이 바보로 불렸던 이유는 외모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여의고 눈이 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구걸을 하기 때문이다. 비록 빌어먹는 신세이기는 하나 눈에 영채가 돌고 기골이 늠름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어린 온달의 비범함은 장마다 싹패아이의 대장인 철지와의 대결을 통해 드러냈다.

구걸로 연명하던 온달은 열 살이 되자 자기 스스로 밥을 일구어 농사를

15) 조령출, <온달전>, 평양: 문예출판사, 1984, 7쪽.(이하 이 작품의 인용은 해당 면수만 표기하기로 함.)

짓고, 사냥을 해서 장에 내다 파는 일로 생계를 이어간다. 하루는 온달이 수달피를 팔려고 장마당에 나왔는데 장마당 삼패아이 두목 철지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철지와 시비중에 철지가 큰 바위를 들면 자기 패에 넣어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온달은 성공을 한다.

그 큰 바위들은 이놈들이 누구도 들지 못한 것이었다. 온달은 잠시 말없이 서있다가 큰돌 앞으로 걸어갔다. 그 옆에 그물망태를 벗어놓고 허리를 펴고 일어섰다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바위들을 두손으로 안고 잡아당겼다. 움푹하고 땅에서 움직인다.

아이들은 놀라는 기색으로 설들 돌아보았다.

온달은 다시 두손으로 큰돌을 “으악” 소리와 함께 버쩍 들었다. 큰돌은 온달의 머리위로 번쩍 올라갔다. 온달의 부릅뜬 두눈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듯하였다. 온달은 큰돌을 머리 위에 번쩍 추켜올린 채 철지가 있는 앞으로 한발자욱 두발자욱 걸었다. 철진 공포에 질리는 듯 얼굴색이 시퍼래지며 뒤걸음을 쳤다.(18면)

아이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 큰 돌을 들어 힘을 과시함으로써 온달은 아이들에게 힘장수라는 말을 듣게 된다. 비록 한때 거지였고 지금은 짐승 사냥을 해서 사는 미천한 처지이지만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철지와 의 대결에서 그의 잠재된 능력은 발휘가 되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힘이 센 온달의 모습을 통해 비범한 아이임을 드러낸 것이다.

온달의 비범성은 그의 효성심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다. 여섯 살 난 아이가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동냥을 하는 것부터가 비범한 행동이다. 온달의 효성심 깊은 성품은 장마당마을 남쪽 모퉁이 뽕나무집에 사는 설부인과의 일화를 통해서 잘 드러난다.

설부인 자매 가운데 언니는 평강공주의 유모로 있는데, 말미를 내어 궁중에서 나와 봄나들이를 하였다. 설씨 자매와 금이가 놀던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녀들이 떠난 후에 놀던 자리에 갔던 온달은 금가락지를 발견하고 주인인 설씨에게 가져다 준다. 설씨는 귀중한 보물을 찾아준 온달의 행위에 대

한 보답으로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옷 한 벌 감의 명주를 온달에게 주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 드릴 마음을 안고 집으로 온 온달은 비탈길 아래 개울에 빠져 정신을 잃고 있는 어머니를 구원해낸다.

온달은 눈물을 씻으며 맑은 샘물을 떠다가 어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어드리었다. 그리고 명주옷 한감을 어머니품에 안겨드리니 그것을 더듬어 만지며 목이 베였다.

“온달아! 네 효성을 하늘이 도우셨구나...”(20면)

온달의 효성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작가는 온달을 비록 가난하게 사는 처지이지만 어머니를 위해 효성을 다하는 효자로 창조해냈다. 온달의 어린 시절의 일화를 통해서 온달을 비범한 힘을 가진 인물로, 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효자로 형상화한 것이다.

영웅소설에서처럼 온달에게도 조력자가 등장한다. 온달의 아랫마을에 사는 경당의 금산노인이다. 경당은 온갖 무예를 공부시키고 글을 가르치는 곳인데, 금산노인이 경당을 차려놓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기에 경당노인이라고 불렀다. 이 경당노인에게 온달은 무예를 익히게 된다.

경당노인은 무술에 능한 노인인데 나라의 장수감을 키워내려고 스스로 경당의 스승이 된 인물이다. 이러한 경당노인의 눈에 온달이 들어온 것이다.

경당로인은 온달이가 얼른 보기에는 어리석은듯하나 그 장대한 몸매 큰 힘이 담겨 있고 그 번쩍이는 눈에 남다른 총명이 담겨있음을 알고 있었다.(29~30면)

경당노인의 지인지감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경당노인은 온달의 힘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을지소와 씨름을 시켜 온달의 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을지소와 씨름 시합하기를 꺼려하는 온달에게 “너두 때가 되면 고구려의 무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격려의 말을 함으로써 온달은 스스로 놀라 고무된다.

경당노인은 온달에게 ‘고구려의 무사’가 될 길을 깨우치는 하면, 씨름대회

에 출전하게 하여 승리를 얻게 하고, 출궁을 한 공주가 온달과 결연한 후에 새로운 집을 장만할 때도 도와준다. 온달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모습이다. 경당노인의 조력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예를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온달과 함께 살게 된 공주는 온달에게 장에 나가 비루먹은 국마를 사오게 한 후에 그 말을 잘 길러서 룡마로 부르고 온달에게 준다. 용마를 얻은 온달은 그때부터 경당노인네 집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쏘기와 창던지는 법, 칼 쓰는 법을 배웠다.

한때 용맹한 무사로 전장에 나아가 이름을 날렸고 일찍이 여러 가지 병법을 배운바 있는 경당노인은 온달과 같은 특출한 재능이 있는 제자를 두고 속으로 여간만 대견해 하지 않았다. 온달의 총명은 정녕 진흙속에 묻혀 있던 옥구슬과 같은 것이었다.(77~78면)

경당노인은 온달의 특출한 재능을 알아보고 진정한 고구려의 무사로 조련했던 것이다. 경당노인은 자신의 딸 아사월과 사위감 을지소, 그리고 온달에게 남다른 무예를 가르치고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두어해 동안 이들을 조련하였다.

경당노인으로부터 무예를 습득한 온달은 자신의 능력을 평원왕 앞에서 발휘함으로써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게 된다. 평원왕은 3월 3일에 락랑벌 사냥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많은 무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온달도 참가하였다. 이 자리에는 평원왕이 공주와 혼인시키려 했던 우로라는 인물도 참가하였는데, 우로 못지않은 활솜씨를 발휘해 칭송을 받는다. 또한 평원왕에게 달려드는 멧돼지를 우로가 화살로 쏘아 잡으려 하지만 실패하자 온달이 달려들어 창으로 찔러 쓰러트림으로써 왕이 감탄을 한다. 온달은 두 번에 걸쳐 왕을 놀라게 했다. 마지막으로 사냥대회의 성적을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무사들은 자기가 잡은 짐승들을 거두고 장대앞으로 갔다. 이날 사냥에서

짐승을 가장 많이 잡은 무사는 누구일가. 모두 가슴을 조이였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짐작하였다. 드디어 장대앞에서 큰소리로 그 이름이 높이 불리웠다.

“서복산 느릅나무골에 사는 온달! 온달!”

사람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한편으로 놀랐다.(98면)

온달은 사냥대회에서 일등을 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왕은 온달을 불러 이름을 물어 보고는 소문으로 듣던 그 바보 온달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놀란다. 공주를 떠올리고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되나 “예법대로 온달에게 향기로운 술 석잔을 내리고 장수갑옷과 보검, 국마 한필 그리고 진귀한 비단이며 금은 패물이 든 함과 상자 등 많은 것”을 상으로 주며 온달을 치하하였다. 온달은 이렇게 사냥대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으나 왕은 인정하지 않는다.

궁궐로 돌아가기에 앞서 왕은 온달에게 평강의 안부를 묻고 혼례 여부도 물었다. 온달이 공주가 부왕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혼례를 하겠다는 말을 전하자 왕은 무사가 되는 길과 부마가 되는 길은 같지 않다고 말한다. 온달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닥친 것이다.

온달이 사냥대회에서 장원을 하고 돌아오자 가족과 마을사람들이 축하하며 떠들썩한 가운데 왕은 공주를 궁궐로 불러 들였다. 공주에게 앞으로 어찌할 셈이냐고 묻자 공주는 부왕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하겠다고 한다. 왕은 온달이 사냥대회에서 용맹과 슬기를 떨쳐 훌륭한 무사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 끝내 부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 이 애비가 온달을 부마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것은 아비로서의 마음이지, 하지만 지엄한 국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104면)

온달은 고구려의 무사로 거듭 인정을 받았으나 부마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공주에게 직접 알린 것이다. 온달은 비록 부마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련을 겪지만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함으로써 최후의 승자가 된다.

북쪽 변경에 지경을 접하고 있던 북국의 외적이 침입하자 평원왕은 대모달

과 우로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적군의 위세에 눌린 대모달이 적진에 포위되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은달이 출전하여 위기에 처한 고구려 군을 구한다.

이때 고구려 진중에서 젊은 병사들 속에 묻혀있던 한 장수가 갈색준만에 올라 긴칼을 높이 쳐들고 은빛으로 찬란한 갑옷을 번쩍이며 비호같이 달려 나아갔다.

그는 대모달을 포위한 저의 장수들을 이리 치며 저리 친다. 칼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 쟁쟁하며 그 소리난곳에 잠시 운무가 서리더니 그는 몸을 날려 적의 장수들속으로 뛰어들었다.

위험에 처한 대모달을 보위하며 긴칼을 휘둘러치니 그의 칼날이 번쩍이는 섬광아래 적장들은 무리로 쓰러지며 적의 포위는 금시로 무너졌다. 그 무서운 장수의 기상앞에 적들은 감히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살아남은 적의 두 장수마저 도망을 치니 그 고구려무사는 대모달을 구원해가지고 본진으로 유유히 돌아왔다. 적의 기세는 땅에 떨어지고 고구려 장병들의 사기는 높아졌다.(107~108면)

은달이 등장해 대모달을 구하고 적진을 물리치는 장면이다. 은달의 활약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은달은 많은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 선봉장이 되었다. 선봉장이 된 은달은 을지소와 아사월, 그리고 철지와 함께 출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여기 저기서 검과 검이 부딪치고 말과 사람이 한데 뒤엉켜 돌아갔다. 번개불이 일고 운무가 자욱하였다.

룽마를 탄 은달의 모습은 한순간에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보였다. 그는 말을 몰아 적들속을 무인지경 같이 달리였다. 춤추는 그의 칼우에 오색 채운이 서리고 적들은 공포에 질려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114면)

전투에서 활약하는 은달의 모습은 전쟁 영웅의 모습이다. 은달의 활약에 힘입어 대승을 거둔 평원왕은 은달과 상의한 후에 복국의 왕과 화친을 하고 적군을 돌려보냈다.

평원왕은 전승을 축하하여 대연을 베풀고 이 자리에서 은달을 사위로 인

정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위로 인정받은 온달이 귀향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느릅나무골에 '새 장수'가 났다고 기뻐하였다. 평강의 부축을 받아 아들을 맞이하던 온달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에 눈을 떠 광명을 찾았다. 영웅의 귀환과 가족의 기쁨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다. 며칠이 지나 온달과 평강공주는 정식으로 혼례식을 올렸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왕의 부마로 인정을 받고 정식 혼인을 거쳐 온달의 부귀영화는 성취되었다. 온달은 영웅소설의 영웅처럼 크고 작은 시련을 극복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미천한 처지에 있던 온달이 조력자 경당노인으로부터 무예 훈련을 받은 후에 전쟁에 나가 승리함으로써 영웅이 된 것이다.

이 작품은 역사 기록을 토대로 한 소설이기에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온달을 영웅으로 형상화하였으나, 기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어지는 장면은 특별한 제목 없이 <온달>과 같이 전장에 나간 온달이 전사하고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위로하여 비로소 장례를 지냈다는 결말을 짓고 있다.

2) 평강공주

온달이 소설적 상상을 통해 영웅으로 형상화되었듯이 평강의 인물 형상 또한 열전에서와는 달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공주는 평원왕이 사랑하는 외동딸이다. 평강은 어려서부터 울기를 잘해 평원왕은 딸이 보고 싶어도 울음소리가 듣기 싫어 가까이 하지 않고, 잠들었을 때만 들여다보곤 하였다. 평강의 울보 성품은 어머니인 왕후의 죽음 이후로 심화되었다. 왕은 역증이 나서 바보온달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평강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그쳤다. 아버지에게 들은 온달의 이름은 이후 공주의 마음에 자리했고, 틈만 나면 유모인 설씨에게 온달에 대해 물었다. 유모는 온달이 바보가 아니라 효성 깊은 아이라고 알려 주었고, 자신이 동생네 집에 갔다가 금가락지를 잃어버렸는데 온달이 찾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때부터 공주는

“천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농사는 어떻게 짓나. 장수들은 무슨 공부를 해서 장수가 되나...”

하며 바깥 세상의 알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물었다.

유모는 아는 대로 이야기하였다.

이렇듯 공주는 궁중 깊은 곳에 자라나면서 바깥세상 이야기는 유모에게서 들어 알아나가고 글과 행실은 태학박사에게서 배워나갔다.(26면)

공주가 궁궐에 지내며 바깥세상 사람들에 대해 궁금해 하며 그들의 삶에도 관심을 갖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훗날 궁궐을 나가 평민인 온달과 함께 살고, 그를 도와 장수로 성장하게 하는 등 별 어려움 없이 살게 된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정해 놓은 셈이다.

온달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졌고 꿈속에서 만나기도 했다.

가끔 꿈속에서 온달을 보곤하였다. 한번은 공주가 선녀가 되어 하늘을 날아 어데론가 가는데 구름이 헤쳐지며 큰길이 나타나더니 그 길우에 한 거지소년이 오고 있었다. 그가 온달이라고 하였다. (중략)

이윽고 청한 피리소리가 나기에 그곳을 바라보니 오색구름을 헤치고 한 장수가 나타났다.

머리에는 새깃을 장식한 절풍을 쓰고 우에는 누른색 큰 소매달린 옷을 입고 아래는 통넓은 흰색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붉은 비단띠를 띠고 발에는 노란 가죽신을 신은 장수인데 그는 온달이라 하였다.(26면)

꿈속에서 공주는 선녀가 되어 거지소년 온달을 만났다. 그런데 그 온달의 모습은 훌륭한 장수의 형상이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온달이라고 놀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생각에는 거지온달이 아닌 아주 늙름한 장수였던 것이다. 온달에 대한 공주의 그리움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꿈속에서 그리던 온달과의 조우는 온달이 씨름대회에 출전한 10월의 제천 행사에서 이루어졌다. 공주는 유모와 함께 제천행사에 참가했다가 씨름 선수

로 출전한 온달을 보게 되었다.

온달은 심판이 시작을 알리자 눈깜짝할 사이에 그를 옆으로 보기 좋게 뺏다뺏고 날래게 몸을 솟구쳤다.

“아- ”하고 평강은 저도 모르게 가벼운 탄성을 올리더니 두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불이 필필 이네듯한 저 누빛, 북스럽게 생긴 저 귀방울이며 환한 저 얼굴, 힘있는 저 팔, 저런 사나이가 과연 나무껍질과 풀뿌리를 삶아 먹으면서 죽지 못해 겨우 살아왔단 말인가. 바보로, 거지로 불리워왔단 말인가.

그는 시녀를 불러 귀중품중에서 상으로 무엇인가 그 총각에게 주고 싶은 말이 가슴에 솟구쳤으나 씨름이 끝난 다음 정릉사를 떠났다.

그는 이날 월계전에 돌아와서도 혼자 있고 싶었으며 웬일인가 공연히 울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35면)

공주가 온달을 처음 본 장면이다. 온달에게 느낀 남성다움은 세간에서 거지로, 또는 바보로 불리는 온달에 대한 평가를 부정하기에 충분했다.

공주가 온달에 대해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원왕은 공주를 대대로의 아들 우로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한다. 그러자 공주는 대왕께서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했던, 한번 정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항변하였다. 왕이 희롱으로 한 말이었다고 하자 공주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바마마께옵서 하신 말씀은 나라의 지엄한 법이 아니오니까, 아바마마께옵서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온 조정의 신하들이 아는것이요, 지어 궁안의 시관들과 궁녀들까지 다 아는바오이다.

부왕께옵서 한번 하신 말씀을 희롱이라 하시오면 온 조정의 신하들과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지존하신 대왕마마의 다른 말씀도 희롱으로 여길것이오니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오리까.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혈육인 딸에게는 희롱의 말이라 하시며 한번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어명이라 하여 어떤 일이든 법으로 지키라 하오면 누가 그를 존엄있게 대하오리까.(42면)

공주는 부왕에게 국왕의 도리까지 언급하면서 한번 하신 말씀을 지키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왕의 말은 나라의 지엄한 법이니 지키라는 것이다. 공주의 항변으로 평원왕은 분통이 터졌고 급기야 공주를 출궁하도록 명령했다.

궁궐에서 나온 평강공주는 유모가 알려준 대로 뽕나무집으로 가서 설부인과 금이의 도움으로 온달의 집을 찾아갔다. 온달을 집을 찾아갔으나 온달과 온달 어머니로부터 여우귀신으로 몰리어 하룻밤을 밖에서 지낸 후에 온달 어머니의 허락으로 온달과 함께 살게 되었다. 온달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나서 자신이 궁궐에서 가지고 나온 온갖 패물로 집과 살림살이를 마련한 후에 경당노인의 권유로 혼례를 치르고자 했으나 공주는 거절을 하였다.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한참이나 말없이 수집게 앉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혼례는 아직 이른가 하오이다. 온달님께서 무예를 공부하시어 매해 3월 락랑벌에서 열리는 사냥대회에 나가시어 이름을 떨치신 다음에도 늦지 않을가 하오이다.”(71면)

공주는 온달이 성공한 후에 혼례식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주의 굳은 결심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온달이 무예를 전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냥대회에 나가며 하물며 이름을 알리겠냐고 반문하자 이제부터 말타기를 조련하고 무예를 힘써 닦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격려하였다. 온달을 성공시키겠다는 평강공주의 강한 의지가 이렇게 표출되었다. 평강은 이후부터 평민의 삶을 살면서 온달을 내조하는 데 진력을 다하였다.

평강은 온달의 집을 찾아온 그 다음날부터 마을아낙네들처럼 허술한 옷을 입었고 눈먼 어머니를 도와서 팔소매를 걷고 부엌에 내려가 아궁이에 불을 때고 밥을 지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하나하나 물어서 일을 배우며 살림을 하였다.(73면)

공주로서의 권위를 버리고 오로지 온달의 성공을 위해 평민의 삶을 선택한 평강의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집안일은 자신이 도맡고 온달은 고구려

의 장수가 되는데 힘쓰라고 독려하는 데에 이르면,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성공시키고 싶은 평강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이러한 평강의 심리가 행동으로 표출된 장면은 온달이 무예 훈련을 하러 경당노인을 따라 보현동으로 갔다가 부인이 보고 싶어서 잠깐 돌아온 데서도 잘 드러났다.

“무슨 일로 이처럼 오셨나이까?”

“집안일도 근심이 되고 어머님과 그대를 보고싶은 생각이 불시로 가슴에 솟구쳐서, 그리고...”

평강의 기색은 준절하였다.

“대장부 한번 세운 그 뜻 이루기전에는 자기 집 문전을 지난다 해도 들리지 않는다 하였사운데 이렇듯 입에 오시면 어찌 장부의 큰 뜻을 이룰수 있겠나이까.”

평강은 불현듯 눈물을 흘리었다.(89면)

평강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온달을 장수로 성공시키겠다는 평강의 일념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온달이 무예훈련을 끝내고 사냥대회에 나가 장원을 차지하자 부왕은 평강공주를 궁궐로 불렀다. 부왕 앞으로 간 평강은 눈물을 흘리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왕의 질문에 가장 될 사람이 고구려의 무사가 된 다음에 부왕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부왕은 온달을 부마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바마마, 대가집 자식이라 하여 충의없는 부마를 고르시겠나이까, 아니면 미천한 집 자식이나 충의있는 부마를 택하시겠나이까? 왕에 대한 충의에도 귀천이 있나이까?(104면)

미천한 인물이어도 왕에게 충의를 다하는 인물이 부마로서 적절한 인물이 아니냐는 항변이다. 부왕과 국가의 앞날까지 걱정하는 평강공주의 인물됨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온달이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고 국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에 평강은 온달과 혼례식을 치렀다.

이후의 장면은 열전의 내용과 같으나 평강의 인물성격은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온달이 전사하자 현장으로 달려간 평강은 움직이지 않는 관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고 나서 관을 쓸어 만졌다.

랑군은 그만 일어나소서. 여기 평강이 왔나이다. 성우의 고구려 군기는 온달님의 넋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여기 모여선 장수들과 모든이들은 랑군님의 뜻을 이어 목숨으로 고구려를 지켜나아갈 맹세를 눈물로 다지나이다.

랑군님이시여, 그 무슨 시름이 있으시면 시름을 놓으시고 그 무슨 마음이 무거우시면 마음을 놓으시고 저와 함께 집으로 가사이다. 시름을 놓으시고 그만 집으로 가사이다.(123면)

『삼국사기』〈온달〉에서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면서, ‘사생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아아! 돌아가소서!’라 말하고, 마침내 영구를 들어 하관하였다.”라고 서술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장면묘사이다. 평강공주의 온달에 대한 지순한 사랑을 드러낸 것으로 평강의 이해심 넓은 성격의 한 면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작가가 창조한 평강공주는 궁궐을 벗어나 평민의 삶을 사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다. 또한 부왕에게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온달을 장수로 만들어나가는 강인한 의지와 지아비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성을 다하는 인물이다.

3) 보조인물 : 설부인 자매, 철지, 경당노인, 아사월, 우로

작가는 『삼국사기』〈온달〉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냄으로써 주동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평강의 유모로 등장하는 설부인과 그 자매, 온달과 장마당에서 겨루었다가 동지가 된 철지,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쳐준 경당노인과 그의 딸 아사월, 그리고 평원왕에 의해 부마로 접지 받았지만 공주와 온달의 적대인물인 대대로와 우로가 그들이다.

평강의 유모인 설씨와 그 동생과 동생의 딸 금이는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다. 설씨 자매는 성장해서 결혼을 했으나 남편들이 북쪽 변방을 침범한 외적

을 막으러 나갔다가 한날 한시에 전사하였기에 홀로 지낸다. 언니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아버지의 연줄로 공주의 유모로 궁궐에 들어가게 되어 딸을 동생에게 맡기고 유모가 되었던 것이다. 동생인 설부인에게서 자란 그 딸의 이름은 금이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설부인의 딸로 자라다가 훗날 평강공주가 출궁되었을 때 유모와 같이 나왔다가 유모인 언니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된다.

유모인 설씨는 평강공주가 일찍 어머니를 여의자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공주를 보살피며 공주에게 온달의 인물됨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바보 온달이라고 하지만 유모는 온달을 평소 알고 있던 터라 온달을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라고 알려준다.

공주마마, 온달은 효성이지극한 효자라 하더이다. 성안거리에 사는 우리 동 집에 밥을 빌러 오는데 음식을 주면 제 입에는 넣지 않고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언제나 동냥구렁에 넣어가지고 간다고 하오이다. 눈먼 어머니를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을 빌어다 모신다고 하니 얼마나 효자오니까?(24면)

동생네 집에 밥을 빌러 와서는 음식을 주면 먹지 않고 어머니에게 갖다 준 일화를 들며 온달이 효자임을 알려주었다. 더구나 인물이 흰하고 잘생긴 사내아이라고 알려주기도 해서 공주가 온달에게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

유모의 동생 설부인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인심을 쓰는 인물이다. 밥을 빌러 오는 온달을 불쌍히 여겨 동정을 하곤 했다. 날씨 좋은 봄날에 유모인 언니가 말미를 얻어 궁궐에서 나와 설부인, 금이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다. 성묘를 마치고 꽃나무그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유모 설씨가 동생 설부인에게 궁중에도 알려진 온달의 소식을 묻는다. 동생 설부인은 온달에 대해 얘기한다.

“온달은 저의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하구 마음이 착하구, 바보처럼 말은 잘 안하지만 속이 깊은 아이라오. 온달이 집에 올적마다 먹을 것을 좀 후히

주고 눈먼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구 음식을 좀 싸보셨더니 글썽 한번은 제가 잡은거라구 하면서 펑 한 마리를 정주간앞에 놓구 달아너지 않겠나 요.”(12면)

설부인의 대사를 통해 온달의 성품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효성이 지극하며 마음이 착하고 속이 깊은데다 의리까지 있는 인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달의 효성은 유모 설씨가 잃어버린 금가락지를 찾아주는 행동을 통해서 직접 표출되기도 하였다.

철지는 장마당 싹패아이 두목이다. 어린 시절에 온달을 놀려줄 생각으로 싸움을 걸었으나 온달의 힘이 센 것을 확인하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온달을 돕는 인물로 바뀐다. 청년시절에는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 함께 멧짐승 사냥도 다녔다.

온달이 평강공주와 함께 살면서 장애 나가 말을 사오라고 했을 때 온달이 말을 사는 것을 도와주고, 대대로의 아들 우로가 온달에게 양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온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썬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서 생기는것일세. 명심해 두게. 철지는 싹패니 나쁜놈이니 하는 말을 듣지만 우리 같은 백성들을 천대하고 세도나 부리며 부화방탕하는 놈들을 보면 벨이 풀린단 말일세. 대형 우로는 술과 계집으로 세월을 보내고 대가 귀족들이 태평가만 부르니 만일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 다네.(76면)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철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대가 귀족들을 비판할 줄 아는 인물이다. 더군다나 외적의 침입에 나라 걱정까지 하는 울분에 찬 청년인 것이다. 온달은 철지의 말을 듣고 예상로운 싹패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리고 무예를 닦아 때가 오면 함께 힘과 재주를 펼쳐보자고 약속을 하였다.

철지는 온달과 평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는 역할도 하였다. 대대

로의 아들 우로의 명을 받은 병사들이 평강공주를 찾으러 나섰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슨 불길한 일이 있을 것 같아 자기네 젊은패들과 함께 밤길을 달려” 온달의 집으로 가서 온달어머니와 공주를 산속으로 피하게 한 후에 병사들을 다른 곳으로 파들려 온달어머니와 공주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온달과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인물인 것이다.

온달이 전쟁에 나갔을 때는 같이 출전하여 온달을 도와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온달을 죽이러 온 자객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날 밤 왕이 베푼 연석에 참례하여 우로의 거동을 살피던 철지는 우로의 흥계가 있거나 없을가 념려하여 온달의 장수막옆을 돌아보다가 마침 비수를 든 자객과 맞닥뜨렸다.(117면)

왕으로부터 승전 축하의 잔치를 받고 장막으로 돌아온 온달에게 우로가 자객을 보냈는데 이를 물리친 것이다. 철지의 행동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경당노인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친 인물이다. 경당노인은 “한때 용맹한 무사로 전장에 나아가 이름을 날렸고 일찍이 여러 가지 병법을 배운바 있는” 인물로 온달이 장수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경당노인은 온달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고구려의 기상을 심어주는 역할도 한다.

경당노인은 마을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동명시조가 세워주신 무술의 나라이다. 고구려의 념은 곧 슬기와 용맹과 신의의 념이며 어진 덕을 숭상하고 선을 빛내이며 악을 물리쳐 굴함없이 싸우는 억센 기상이다. 우리가 활을 쏘고 말타기를 하고 씨름도 하며 무술을 닦는 것은 고구려의 념을 지니자는 것이다. 지금 외적이 호시탐탐 우리 나라를 노리는데 고구려의 아들딸들인 우리 젊은이들은 이 념을 지니고 고구려를 빛내어나가야 한다.”(32면)

경당노인은 동명시조의 후예인 고구려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한때 용맹한 무사”로 온달에게 무예를 전수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기상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다. 고구려를 이어받은 북한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은연중 드러낸 것이다. 경당노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이 가르치는 온달과 을지소, 아사월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경당로인은 그들의 무술이 겉보기에는 훌륭한 듯하나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하였다.

“고구려의 참된 장수가 되려면 먼저 고구려의 녀을 지녀야 한다. 그 녀이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을 바쳐 싸울 줄 알며 물러설 줄 모르는 녀이다.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옳은 뜻과 밝은 도의를 갖지 못할 때에는 그 무술이 쓸모없이 된다. 그리 알고 이제부터 고구려의 훌륭한 무사가 되도록 더욱 전력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경당로인에게서 그들의 자질에 맞게 고구려의 무술과 병법을 하나하나 배웠다.(83면)

경당노인은 온달과 을지소, 그리고 아사월을 데리고 보현동에 들어가 무예 훈련을 시켰다. 경당노인은 세 사람의 무예를 직접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경당노인은 단순히 무예훈련만 시키는 인물은 아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의까지 가르치고 있다. 무예와 인간성을 겸비한, 고구려의 녀을 지닌 무사를 기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온달을 진정한 장수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온달이 장수로서의 능력을 조력자 경당노인을 통해 습득한 것은 영웅소설에서 보여 주었던 조력자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경당노인의 딸 아사월은 십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워 칼솜씨가 뛰어난 여성인데 온달의 무예 훈련에 커다란 동기로 작용하는 인물이다.

늘 가냘퍼 보이던 처녀가 남북차림에 소매가 좁은 은비늘갑옷을 떨쳐입고 손에 긴 칼을 들고 나서니 정말 소년장수처럼 슬기로워보였다.(79면)

이 장면은 아사월이 칼 솜씨를 선보이는 장면이다. 아사월은 여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온달과 함께 무예를 익힌 후에 온달이 장수로 참전하자 온달을 돕기도 했다. 아사월의 여전사 이미지는 북쪽 적군과의 전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사월도 말을 달리며 칼을 휘둘렀다.
 말울음소리, 사람들의 함성과 비명소리가 넓은 들에 울려 퍼졌다.
 아사월의 칼날아래 적들은 무리로 쓰러졌다. 포위된 적군은 더 싸울 기세를 잃고 배산별 북쪽으로 물러서 마지막 방진을 쳤다. (중략)
 하나 자기 진막에 돌아온 아사월은 말에서 내리자 그냥 땅에 쓰러졌다. 마지막 접전에서 그는 날아오는 적의 화살에 치명상을 입은 것이다.
 소녀의 연약한 몸으로 여러번 적들을 물리쳐 고구려 무사의 슬기를 빛낸 인 아사월! 이 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114면)

칼을 휘둘러 적군을 제압함으로써 고구려 무사의 슬기를 빛낸 아사월의 모습은 영락없는 여전사이다. 전쟁에 참전한 여성 인물의 모습은 북한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사회적 배경이 작가로 하여금 여전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온달전〉에서 소설적 흥미를 배가 시킨 인물로 설정된 것이 대대로와 그의 아들 우로이다. 이들은 반동인물로서 온달 평강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대대로는 고구려의 최고 벼슬인데 개국공신 고씨가 대대로이다. 그는 조정에서 대단한 세도를 부리는 인물이지만 평강공주에게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다. 공주의 시비 홍화의 언니가 그 집안에서 도둑질한 사람으로 몰려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공주에게 대대로 집안은 “나쁜 집안”이라는 인상이 박혔다. 공주는 10월의 제천행사에서 대대로의 아들 우로와 마주쳤다. 우로 또한 공주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더구나 그후 홍화에게서 또 들은 우로란 사람은 얼마나 추잡한가. 아직 순진한 총각으로 있을 때에 저의 집 시녀를 통락한다니 얼마나 망측한가.

그 이름만 들어도 맑은물이 흐려지는듯하였다.(36면)

공주가 알고 있는 우로의 인간성이다. 우로는 인간됨이 추잡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러한 우로가 제천행사에서 시를 지어 공주의 시와 함께 뽐히게 되었다. 이에 평원왕은 우로에게 대형이라는 벼슬을 내리고 궁성호위도감이라는 중임을 맡기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원왕이 부마를 삼고자 하여 공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인물이다.

우로의 등장은 온달과 경쟁관계의 인물을 설정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평강을 사이에 애정의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기능도 수행한다.¹⁶⁾

우로의 악행은 공주가 출궁하여 온달과 살게 되자 군사들을 보내어 공주를 찾아오게 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철지와 온달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지속적으로 온달의 적대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북쪽 적군을 맞아 전투에 나갈 때 온달이 선봉장이 되자 우로는 좌익장을 맡았으나 적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은 온달과 을지소, 아사월의 활약으로 승리를 거두자 평원왕은 잔치를 베풀었다. 이에 우로는 온달을 제거하려고 자객을 보내는 악행을 행한다. 이 또 철지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전쟁 후에 평원왕은 군공에 따라 상을 내렸다. 우로에게는 “싸움에서 자기의 직책을 옹기 지키지 못한 죄과”를 들어 변방의 조그마한 성의 무관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우로는 반동인물로 설정되어 온달과 적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설적 흥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온달전>은 온달을 중심인물로 두고 평강의 내조에 힘입어 장수로 명성을 날린 후에 부마가 되는 온달의 행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가는 온달을 돕는 보조인물을 창조해 냄으로써 『삼국사기』의 <온달>과는 다른 소설적 흥미를 이끌어 냈다. 작가가 창조해 낸 철지, 경당노인과 을지소, 아사월,

16) 최지선, 앞의 논문, 99쪽.

설씨부인, 적대인물 우로 등은 소설의 서사를 풍성하게 한 인물이면서 소설적 흥미를 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근거에는 온달의 인민적 영웅상을 창조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 북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V. 남북한의 온달 이야기 비교

온달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 작가의 시선은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 작가인 김지원은 당대 여성들이 겪는 자아정체성 문제를 '편강공주'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삼국사기』의 〈온달〉을 소재로 하고 대체적인 서사는 이를 따르고 있으나 제목을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로 표명한 것처럼 작품의 주동인물은 '온달'이 아닌 '편강공주'이다. 여성인물을 주동인물로 내세운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된, 당대인들의 현실적 문제인 결혼관에 대해 소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사회 현실의 모순도 지적하고 있다.

작가는 결혼은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에게 남편 혹은 자식은 자신의 이상이나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통한 성취는 결국 한계를 지닌다. 궁극적인 자아성취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온달〉을 소재로 아주 짧은 단편을 창작해 냈지만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본다. 현대인, 그것도 여성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인 결혼생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소설은 문학의 기능을 한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첨가한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남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이 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결혼생활이 편하지 않았다는 언달의 고백에 이어

새로운 여성을 찾아 나선다는 결말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남한 사회 현실에 대한 반영인 셈이다.

남한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온달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남북한 문학사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북한에서 온달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¹⁷⁾ 북한 문학사에서 온달을 중시하는 경향은 일차적으로 김일성 교시에 근거한다. 미천한 처지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서사와 무술에 능하고 지혜와 용맹성이 있는 고구려 사람의 모습을 온달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성과 애국심을 갖춘 온달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지향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기에 중시된 것이다. 조령출의 〈온달전〉 또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이 지도사상으로 정한 마르크스주의는 인민영웅의 성장과정을 더없이 중요시한다. 영웅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영웅주의는 역사 발전의 방향에 따라, 자신이 위치한 사회적 지위에 입각해 일체의 곤란이나 고통을 극복하고, 굳이 확신을 갖고 대항하고 행동하는 정신을 말하는데, 단순히 공명심이나 자신만의 이익에 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 온달에게 무예훈련을 시키는 경당노인, 온달의 보좌를 맡은 경당노인의 딸 아사월과 사위 을지소, 그리고 철지 등 보조인물은 온달의 유력한 조력자로서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건전개를 풍부히 하였다.

평강공주에게 온달의 실체를 알려준 유모 설씨녀와 그의 가족은 공주가 온달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기 동생인 설부인에게 부탁하여 궁밖에 나간 공주를 돕게 하며 심지어는 자기의 딸 금이를 시녀로 데리고 가라고 한다. 설씨녀와 설부인은 모두 전쟁 통에 남편을 잃고 유복자인 금이를 키우면서 꾀꾀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적 인물들은 남성적 인물 못지않은 용기와 집단적 지혜를

17) 줄고, 앞의 논문, 참조.

보여준다. 그리고 아사월은 여장부로 등장하는데 무예가 출중할 뿐만 아니라 싸움터에선 남자보다 못지않은 지휘 능력과 용맹을 보여주며 전쟁터에서 온달장군을 협조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여성인물들의 등장과 활약은 문학이 시대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과 사회주의의 현실 하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조국 건설, 보위의 중임을 떠메고 나가야 한다는 애국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와 영웅상의 관념에 응한 것이다. 북한문학에서 애국주의는 지속적 주제 가운데 하나로 주체사상을 통해 민족적 자주성이 새삼 강조되면서 그 불가결한 부분이 된다.

작품의 결말부에서 작가는 인민출신의 영웅 온달의 이야기는 온달의 전사를 아쉬워하고 공주와의 믿음과 사랑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심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평한다. 이는 북한의 시대적 과제인 조국보위의 사명, 영웅 영생불멸이라는 영웅 숭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영웅주의는 언제나 대중적 영웅주의여야 하고 영웅의 비범함은 언제나 대중 속에서 나와야 하며 대중을 이끄는 것이라고 하여 온달이라는 영웅은 귀족계급과 대립되는 평민 계층의 영웅이다. 또한 작품에 나온 긍정적 인물 다수가 모두 평민층이고 부지런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최종 목적을 이룬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 또한 대대로를 포함한 귀족계층을 뛰어 넘는데, 이는 북한의 인민성 강조와 관련이 된다.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은 일반대중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무기로 복무한다. 그래서 문학예술 작품에서 인민성은 인민생활에서 의의 있고 인민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작품에 반영하는 데서 표현된다. 인민성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작가들은 인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현실생활 속에 의의 있는 문제들을 인민들의 견지에서 작품 속에 반영해야만 되는 것이다.

『삼국사기』 〈온달〉에서는 밥을 빌어먹는 거지아이지만 조령출 작품 속의 온달은 고난 속에서도 깨끗하게 버티고 냉정하고 진취적이며 천성적 기질을 지니고 있다. 후에 경당노인의 가르침에 나라를 위하여 포부를 펼치겠다는

일념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다른 인물인 공주도 왕의 딸이지만 우로를 포함한 귀족계층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며 그들과 사귀고 지내는 것보다 항상 평민들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북쪽 적군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는 인물들도 귀족계층이 아닌 용맹한 아사월, 을지소, 철지로 설정되어 있다. <온달>이 공주와 평민과의 인연을 보여주었다면 조령출의 작품은 귀족계층의 대표자인 공주가 인민대중 속의 영웅인 온달을 만나 자주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애정갈등과 고구려 보위전이라는 역사시대의 사명이 결합된 영웅의 전투혁명사이다. 공주, 온달과 우로 사이의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다루어져 있지만 전체 작품이 강조하는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한 긍지와 보위라는 이념이 더욱 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의 현실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온달을 바라보는 남한과 북한 작가의 시선은 분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 작가인 김지원은 당대 여성들이 겪는 자아정체성 문제를 ‘편강공주’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삼국사기』의 <온달>을 소재로 하면서 대체적인 서사는 이를 따르고 있으나 제목을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로 표명한 것처럼 작품의 주동인물은 ‘온달’이 아닌 ‘편강공주’이다. 여성인물을 주동인물로 내세운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종속된, 당대인들의 현실적 문제인 결혼관에 대해 소설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작가는 결혼은 인생의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에게 남편 혹은 자식은 자신의 이상이나 자아 성취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통한 성취는 결국 한계를 지닌다. 궁극적인 자아성취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하는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온달〉을 소재로 아주 짧은 단편을 창작해 냈지만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본다. 현대인, 그것도 여성이 안고 있는 현실적 고민인 결혼생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소설은 문학의 기능을 한 셈이다.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온달〉의 서사를 통해서 대변한 것이다.

남한에서의 〈온달〉에 대한 재해석과 달리 북한에서는 〈온달전〉을 통해 온달을 주동인물로 한 영웅의 성장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령출 〈온달전〉의 온달 형상은 인민영웅이다. 고난 속에서도 꺾끗하게 버티고 냉정하고 진취적이며 천성적 기질을 지니고 있다. 후에 경당노인의 가르침에 나라를 위하여 포부를 펼치겠다는 일념을 가진 인물이다. 또한 공주도 왕의 딸이지만 우로를 포함한 귀족계층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며 그들과 사귀고 지내는 것보다 항상 평민들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북쪽 적군과의 전쟁에서 전공을 세우는 인물들도 귀족계층이 아닌 용맹한 아사일, 을지소, 철지로 설정되어 있다. 『삼국사기』 〈온달〉이 공주와 평민과의 인연을 보여주었다면 조령출의 작품은 귀족계층의 대표자인 공주가 인민대중 속의 영웅인 온달을 만나 자주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애정 갈등과 고구려 보위라는 역사시대의 사명이 결합된 영웅의 전투혁명사이다. 그리고 공주, 온달과 우로 사이의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다루어져 있지만 전체 작품이 강조하는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한 긍지와 보위라는 이념이 더욱 짙게 반영되었다. 미천한 처지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서사와 무술에 능하고 지혜와 용맹성이 있는 고구려 사람의 모습을 온달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성과 애국심을 갖춘 온달은 북한의 정치사회적 지향에 부합하는 인물이었기에 중시된 것이다.

남한의 온달은 현실 사회가 안고 있는 개인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온달은 정치적 성향이 강한 집단의 문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사 인물 '온달'에 대한 시선이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드러난 것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남과 북이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우리의 소설 문학은 남과 북을 상호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지원, 〈편강공주와 바보 언달 이야기〉, 『정통한국문학대계』 60, 어문각, 1986.
조령출, 〈온달전〉, 평양: 문예출판사, 1984.

2. 논저

- 김유미, 「최인훈 희곡의 신화성과 역사성 연구」, 『어문논집』 37, 안암어문학회, 1998.
김운정, 「1970년대 희곡의 전통 활용 양상과 극적 형상화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김정혜, 「최인훈의 패러디 희곡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7.
김현실 외, 『한국 패러디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6.
노지혜, 「최인훈 희곡에 나타난 설화 변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박진희, 「최인훈 설화 소재 희곡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6.
우현철, 「최인훈 희곡세계의 신화원형적 고찰」, 상명대 박사논문, 2012.
장경남, 「북한문학에서 '온달'의 형상화 연구」, 『온지논총』 50, 온지학회, 2017.1.
정찬영,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 『한국문학논총』 27, 한국문학회, 2000.12.
진재교, 「삼국사기 열전 분석의 한 시각」,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최두레, 「최인훈 희곡의 설화 변용 연구」, 충북대 교육학박사논문, 2012.
최지선, 「온달설화의 전승과 수용」, 성신여대 석사논문, 2005.
최현정, 「온달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 아주대 석사논문, 2007.

〈Abstract〉

The Comparison of Novelistic Figuration of 'Ondal' in South and North Korea

Jang, Kyung Nam

Certain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viewpoint of 'Ondal' by authors i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Princess Pyeongang and Stupid Eondal〉, a South Korean author, Kim Ji-Won talks about women's self-identity of the time in the position of 'Princess Pyeonggang'. Even though this novel follows the general narratives with the material of 〈Ondal〉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just as shown in the title, imposing the female character as the leading character of the work aims to raise a question about the view of marriage which was the realistic issue of the time when women were subordinated to men.

Contrary to South Korea, 〈Ondal Jeon〉 by of North Korea focuses on a hero's growth process. As a public hero, Ondal is cold-headed, adventurous, and taking a firm stand even under hardship. The look of Goguryeo people who were excellent at narrative, martial arts, wisdom, and courage has been found from Ondal who was grown into a hero from a lowly status. Ondal equipped with publicness and patriotism has been emphasized as a character according with the sociopolitical orientation of North Korea.

Ondal of South Korea materializes personal issues in the realistic society while Ondal of North Korea materializes the issues of a group with strong political tendency. Based on the differences in novels of South and North Korea with the material of a historical character 'Ondal', we should admit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th and North. Our novel literature is valuableJo Ryeong-Chul enough to be used as a tool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of the South and North.

Key Words : Ondal, Princess Pyeongang, South and North Korea, Princess Pyeongang and Stupid Eondal, Ondal Jeon, Kim Ji-Won, Jo Ryeong-Chul.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